EQ가 생동하는 한가위 되길

서산문화원장
이 준 호

예부터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추석(秋夕)은 중추절(仲秋節)이라고도 하고 한가위라고도 하면서 우리나라 4대 명절에서 양대 명절로 발전된 민족 대명절로 손꼽히고 있다. 농사일로 바빴던 그동안의 일손을 잠시 놓고 친족끼리 만나 차례를 지내고 산소를 찾아 성묘하면서 집안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추석은 왠지 분위기가 예스럽지가 않고 스산한 느낌이다. 서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다시 한 번 민심이 들썩거리고 편 가르기 식의 분열되는 양상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계속되는 재보궐 선거로 시민들은 짜증스럽고 사회가 온통 정치판이 된 기분이어서 추석민심이 따뜻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보낸 민심은 갈수록 흉흉해지고 지역 발전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는 듯하다. 각 분야가 모두 같은 맥락일 테지만 문화 쪽은 발전이 늦어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즉 단체장의 문화적 소양에 따라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대의 흐름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문화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문화공간의 확충이 시급한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는 문화에 대한 정서 지능의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람의 지능을 검사하는 데는 IQ라는 측정척도가 있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잘 조절하고 적절히 표현 할 줄 아는 능력을 재는 EQ가 있다. EQ에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 조절하는 능력, 감정이입능력 등이 포함된다. 학창시절 공부하는 능력은 IQ가 높아야지만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EQ가 높아야 되는 것이다. 모든 분야의 리더들은 역시 정서적 지능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번 추석은 가족끼리 또는 친지들이 모여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오갈 것 같은 느낌이다. 햅쌀로 메를 짓고 송편을 빚고 햇과일을 올려 차례를 지내는 한가위의 정성이 결코 헛되지 않는 소중한 만남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EQ가 생동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핵가족화되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요구되는 현실이다. 두 달간의 지루한 장마로 농사가 잘못되어 농민들이 시름에 차있는 즈음에 가족들의 따듯한 위로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것이다. 서로 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한가위를 기대해본다.

瑞山海域의 역사민속과 민중생활사

주 강 현
(제주대석좌교수 · 해양문화연구원장)

차 례

Ⅰ. 서산의 해안취락과 어민의 삶
1) 조선후기 : 호산록의 경우
2) 일제강점기 : 『한국수산지』의 경우

Ⅰ. 서산의 해안취락과 어민의 삶

1) 조선후기 : 호산록의 경우

서산지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촌(散村) 경관이다. 가옥과 경지의 연접현상, 개척되다가 남은 도상의 나무숲이 군데군데 남아있다. 동시에 서산지방 촌락의 역사는 '해만개척의 역사' 이다. 태안반도의 해안선은 출입이 많고 간석지가 많아서 일찍부터 농경지, 염전, 양식장 등으로 개척될 수 있는 것이 많았다. 태안반도 지방에서는 '魚鹽柴水' 라는 말이 있다. 물고기와 소금, 소금을 구워내기위한 땔감, 그리고 식수가 있는 곳이면 촌락입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춘 곳이었다. 실제로 태안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육지의 굴곡부와 바다가 만나는 골에는 주민들도 그 연대를 알지못하는 오래된 방조제가 축조되어 농경지로 이용되는 곳이 많고, 소금 굽던 장소인 '벗터' · '벗말' 등의 지명이 확인된다. 즉 서산의 촌락사는 '해만개척의 역사' 라고 규정지을수 있을 것이다.[64]

『여지도서』의 기록을 통해보면, 100호 이상의 큰 취락 안에 부석면의 대두리, 갈마리, 가사리,

64) 『서산시사(지리편)』,1989, 119쪽.

서산시의 읍내동 · 풍전동, 대산읍의 영탑리, 대산리, 대죽리, 해미면의 동암리가 나타난다. 당시 총호수가 13,538호였음에 견준다면 100호이상은 매우 컸다. 부석면의 대두리 · 갈마리 · 가사리는 적돌만에 면해있는 지역으로 간척으로 막히기 전만해도 서산지방에서 수산물이 가장 많이 나던 곳이다. 대산지역은 조선시대에 목마장과 수군 첨사가 주둔했던 곳이며, 해안에서는 어염과 제염이 성했던 곳이다. 서산의 대부분의 어촌은 반농반어였지만 가로림만에 연해있는 중왕리(왕산이), 우도, 고파도, 대산읍 대죽리의 녹안이, 적돌만 연안의 봉락리 등은 거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촌이었다.

『호산록』에는, '본읍에서는 대산(大山), 지곡(地谷), 문지고개(文智古介), 마산(馬山), 화변(禾邊) 등의 여러곳에서 해산물을 잡는다' 고 하였다. 대산과 지곡은 가로림만, 문지고개와 마산 · 화변은 천수만 지역이다. 오늘날로치면 대산, 지곡, 부석면 일대의 어촌들이며 갯벌 등이 면해있고 만이 형성되어 천혜의 수산입지를 보여주는 곳들이다. 오늘날 좋은 어장이 과거에도 좋았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호산록에 등장하는 어민들의 처지는 대단히 곤궁스러웠고 관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민 개인만이 아니라 어촌 마을공동체 전체가 관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음이 드러난다.

가난한 홑옷을 입은 어민들이 어름을 깨고 굴을 채취하고 눈을 쓸고 낙지를 잡는데 맨발로 언 갯뻘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가난한 어민들이 의복조차 제대로 갖추어 입질 못했다는 뜻이다. 짚신 신고서 펄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니 엄동설한에 맨발작업의 고통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이다.

천번만번 죽을 고생해서 관청에 헌납하면 인정사정없는 관리인은 해산물을 더 배정하며 겨울철 사용할 바가 부족하다 핑계하고 독촉하여 받아들인다. 게다가 별도로 차사(差使)를 보내어 크고 작다고 따지며 혹독하게 볶아대니 어민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물며 6-7월 바쁜 농번기에 관리의 침해를 당하고서 원통하여 울부짖는 상황을 누가 알랴. 차사들의 호령소리를 들으면 마을민들이 모여서 뇌물을 공동으로 준비하는데, '인정의 해산물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니 인정해산물이란 뇌물을 뜻하는 것이다. 공동납(共同納)과 또다른 의미에서 공동뇌물을 준비해두지 않을 수 없는 어촌의 실정이다.

관청에 직접 들어가는 해산물은 많다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인정 뇌물을 받치지 않으면 차사들이 괴롭혀서 관원들에게 곤장같은 형벌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관청의 위아래가 철저히 썩었음을 반증한다. 다만 해산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금도 가렴주구의 대상이고, 곡식도 마찬가지다. 동네 가운데에 색장(色掌: 이장 · 풍헌)으로 권농하는 자와 전답이라도 가지고 있는 호주들은 대 · 소관리의 수족이 아닌자가 없다. 동네에 통고하여 '아무개날 밤에 병방관리(兵房官吏) 아무개와 이방관리(吏房官吏) 아무개가 군대 조련하는 일로 갈 것이니 아무날 저녁에 전의 형방(刑房) 아무개 등이 곡식을 사들여 가는 일로 올 것이다' 고 한다. 관리들이 처자들을 거느리고 살

아가면서도 모두 이처럼 민간의 의탁해서 살아간다. 한마디로 관리들이 '민간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세태가 엿보인다.

가을철 달 밝은 밤이면 뭇관리가 관청일을 마친 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각 동네 민가에 찾아다니며 큰소리와 작은 소리로 찾고 부르며 마구 들어오니 비록 닭은 울지 않으나 개 짖는 소리는 밤이 새도록 끊기지 않는다. 호산록의 저자가 다소 과장되게 묘사 했을성 싶으나 착취의 도가 넘었음을 알수 있다. 가난한 어촌의 민중들로서는 마지못하여 곡식 됫박을 허락해주지만 적다고 성내어 받지 않고 반드시 몇 말을 퍼준 후에야 받아간다.

이와 같이 관청 세력을 의탁하여 앞에 왔던 자가 가고나면 뒤에 오는 자가 있고, 다시 앞에 온 자가 가고나면 다시금 뒤에 오는 자가 있다. 오늘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이와 같이 하며 또 내일에도 이같이 하니 곡식은 한정이 있는데 달라는 자는 끊이지 않으니 민간이 곤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중에도 대산과 지곡 주민들의 침해를 당하는 정도가 다른 마을에 비하여 유독 심하였다. 이는 사냥하는 일로 관리가 자주 들어오고 품관까지도 오고가는 것이 끊이질 아니하여 관리들의 조석제공과 마태(馬太) · 마죽 제공, 게다가 어물과 소금을 거두어 가며, 개인 사냥까지 덮치어 한계를 찾을 수 없다 하였다. 국영목장터였던 대산반도 쪽의 사정이 가장 심각했음을 호산록을 적시해준다.

2) 일제강점기 : 『한국수산지』의 경우

『한국수산지』 3권[65] 충청남도편에 해미군, 서산군, 태안군편이 있다. 각각의 편에 서술된 현재의 서산관할지역 관련 내용을 직번역과 약간의 설명을 보태어 서술해보기로 한다. 먼저 해미군 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66]

본조(本朝; 조선왕조) 태종 7년, 정해(貞海)와 여미(餘美) 두 현(縣)을 합쳐 하나의 현으로 만들고 해미(海美)라고 칭한다. 태종 13년, 현감(縣監)을 설치한다. 건양(建陽) 원년에 군(郡)이 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른다. 정해현은 고려(高麗) 고구현(高丘縣)의 일부이고 여미현(餘美縣)은 본래 백제(百濟)의 여촌현(餘村縣), 신라(新羅)의 여읍현(餘邑縣)이다. 동쪽은 당진 · 오천 · 덕산 · 홍주의 네 군과 접하고, 남쪽은 결성군에 접하며, 서쪽의 대부분은 서산군과 경계를 이루는데 일부는 바다에 속한다. 북쪽도 역시 바다에 임한다.동쪽의 홍주 · 덕산 양군에 속하는 가야산(伽倻山)의 지맥은 본 해미군을 관통해서 서쪽으로 뻗어 나아가 팔봉산(八峰山)으로 솟아오른다. 그리고 그 지맥은 군내를 기복(起伏)하지만 예로부터 지세가 평탄하고 하천은 그다지 큰 것이 없고 대체로 한두 개

65) 朝鮮總督府農商工部水産局, 『韓國水産誌』3卷, 朝鮮總督府印刷局, 1910.
66) 『韓國水産誌』3卷, 762-766쪽.

소류(小流)의 사장포만(沙長浦灣)으로 물이 흐른다.

남서쪽은 사장포만(沙長浦灣)을 내려다보고 북쪽은 아산만의 지만(支灣)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양안(兩岸) 모두 굴곡이 적다. 연안선은 실로 짧고 남서안(南西岸)은 조석간만(潮汐干滿)이 불규칙함으로서 창조(漲潮)시의 침수가 겨우 4시간, 퇴조(退潮)시에는 광막한 흑색의 진흙언덕을 드러낸다. 북안(北岸)도 역시 갯벌로 덮혀서 수산물이 궁핍하다.

해미읍은 군의 남쪽에 위치하고 결성(結城)으로부터 4리, 홍주로부터 4리, 서산으로부터 3리 등이다. 군청 밖으로 서산경찰서의 순사주재소, 우편소등이 있다. 그 위치, 홍주 · 서산간의 우편선로에 해당하고 우편물은 매월 15회 발송된다.

이 곳은 매월 5일과 10일에 장(市)이 서는데 집산물은 어류, 연초(煙草), 종이, 포목 등으로서 집산지역은 서산 · 태안 · 덕안 각지이다. 그 외에 '일도면 여미(一道面餘美)' 에서는 1일과 6일에, '염솔면 천의(鹽率面天宜)' 에서는 4일과 9일에 장이 선다.

육로는 결성군을 지나 홍주에 이르러 오천과 아산을 경과하고 평택에 이르면 비로소 철도로 연결된다. 수운은 연안에 양호한 항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일까, 예로부터 특히 교통이 편리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창리, 대호리 등에서 인천과 군산으로 상선이 왕래하고 있다.

물산은 육지산물로는 쌀, 보리, 밤, 대두, 소두, 연초, 마포, 소, 돼지 등이 있고, 수산물로는 石首魚(조기), 大刀魚(대구), 鯛 (도미), 鰡(숭어), 鱸(농어), 蛸(오징어), 烏賊(오징어), 蟹(게), 蛙(맛), 潮吹貝, 水松貝, 食鹽 등이다.

어업은 어살[漁箭]과 조개채취 등이다. 어살은 舊 1월에서 5월까지와 8월에서 9월까지 전안(前岸)의 갯벌에 설치해서 大刀魚(대구), 石首魚(조기), 鯒(바다메기), 鰡(숭어), 鱸(농어), 鰕(새우), 蟹(게) 등을 어획한다. 조개 채취는 부인들이 부업으로서 연안에 이르는 도처에서 행한다.

연안의 갯벌에는 초조해(招潮蟹)가 많은데 그것을 채집해서 염장한다. 그 방법은 우선 조수(潮水)를 끓인 후에 냉각을 기다린다. 그것을 게를 넣어둔 항아리에 붓고 조금 방치해 두었다가 염분이 충분히 침수될 때를 보고 게를 떠 올려서 호초(胡椒)를 혼합하여 다른 항아리에 저장하여 판매한다. 남은 진액은 다시 끓여서 다른 게를 염장하는데 이용한다.

본 군을 나누면 10개 면이 되는데, 바다에 인접하는 것은 남서안에 걸치는 하도면(下道面)과 남면(南面), 북안에 걸치는 염솔면(鹽率面)과 서면(西面) 등이다. 연안의 어촌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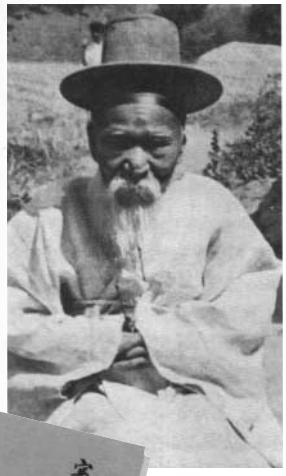
○ 하도면(下道面) : 서창리(西倉里), 생천리(生川里), 봉산리(燧山里), 사기소리(沙器所里)

○ 남면(南面) : 상대산리(上岱山里), 하대산리(下岱山里), 석포(石浦)

○ 서면(西面) : 전동(箭洞), 대호리(大湖里), 출포리(出浦里)

○ 염솔면(鹽率面) : 삼곡리(三谷里), 천의리(天宜里)

한월당(寒月堂)
김상정(金商玎) (1875~1954)



김상정은 강화도 사건이 일어난 해인 고종 12년 (1875년) 9월 충남 예산군 봉산면 마교리에서 출생 했으며, 6.25 동란을 겪은 직후인 1954년 8월 서산군 성연면 고남리에서 타계하였다. 본관은 경주, 자는 명옥(明玉), 호는 한월당(寒月堂)으로 독립운동가이다. 하지만 김상정은 선생은 지역의 독립운동가 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한월당의 고조부인 김한록(金漢祿)은 조선후기 기호 학파내 최대의 학술 논쟁였던 호락논쟁의 중심에 서서 호학을 주창한 유학자인 한원진(韓元震)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이다. 이후 이러한 학풍은 홍주 문화권에서 김복한, 이설을 비롯 김상정 등 유생들에게 전수되어 19세기 후반 적극적인 위정척사운동 내지는 항일민족운동을 일으키는 사상적 연원이 되었다.

김상정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심히 빈곤하여 스승을 모시고 수학할 형편이 안되었지만 고조부인 김한록 학문을 계승하여 민족적 위기가 닥침에 따라 척이단의 이념을 실천 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여 망국민이 된 그는 철저한 의리론에 입각한 항일투사로서의 삶을 살았다. 1918년에 고종황제의 승하(昇遐) 비보를 듣고 혈서로 '대명의리(大明義理)' 네 글자를 기(旗)에 써서 꽂고 대성통곡해 군중을 격동 시켰으며 이로 인해 3.1운동의 유도자가 되었다.

1919년 정초에 왼손가락을 잘라 '복수대의'라 혈서하여 높은 대에 걸어놓고 민족의 봉기를 촉구하는 혈서투쟁을 전개하였다. 100여장의 혈서를 쓰는 동안 피가 마르자 가슴을 찢어 피를 내어 격문을 써서 겨레의 의거(義擧)를 촉구 하고, 한달 후 다시 장지(長指)를 찢어 격문을 써서 군중을 지휘, 선동하였다.

그 후 3.1운동 직전에 왜경에게 피납, 갖은 악형을 당하고 혈서와 의기, 격문 등을 모두 빼앗겼다. 그 뒤 왜경이 찾아와 조선을 합병한 것은 '조선의 요청에 의한 것이니 협조하라.'고 회유하자, 그는 왜경을 몽둥이로 마구 구타하고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2년에는 호별세 통지서가 전달되자 남의 나라를 빼앗은 놈들이 세금까지 내라느냐 노발대발하고 손가락을 찢어 혈서로 왜왕대정(倭王大正)과 총독을 꾸짖는 한시를 쓰고 또 나 대한일민은 세금 안 낸다고 써서 통지서와 함께 왜왕에게 보내라고 반송하였다.

1924년에는 전매령(轉賣令)이 내려 담배 경작을 임의로 못하게 하자, 그는 팻말을 써서 꽂고 동리가 공모하여 계속 경작케 하니 왜노가 또 체포하였다. 1933년에는 행정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납치, 늑삭(勒削:강제로 삭발하는 것)을 하려하자 왼손을 물어뜯어 피를 입에 물어 왜경의 얼굴에 뿜어대는 바람에 늑삭을 못하였다.

그는 항상 상복을 입었으므로 왜경들이 상복을 벗기려 해도 계속 입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왜경이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1937년 당시 여주 흥천면에 거주할 때 왜경이 찾아와 상복을 벗기려 하자 완강히 거부하니, 사상이 나쁘다고 마구 구타해 허리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여주 감옥에 수감 당하였다.

그는 해방 후에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를 찾아가 친일 매국노를 처단하여 민족정기를 확립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신탁통치를 반대하여 완전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그는 일평생을 항일 투쟁으로 마쳤고, 왜경이 갖은 악형과 행패로 그를 굴복시키려 했지만 끝내 불굴의 투지로 대한 남의 기개를 만천하에 드높였다. 그의 유고를 아들 김홍제씨가 번역하여 "한월빙설"을 발간하였다. 2010년 문화원에서는 "한월빙설"을 증간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그의 학문과 항일 투쟁의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982년 대통령 표창, 1990년에는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무사 백동수〉의 북벌 정신

SBS 드라마 〈무사 백동수〉의 밑바탕을 흐르는 것은 북벌 정신이다. 청나라에 복수하고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자는 정신이 드라마의 저변을 지배하고 있다. 드라마 속에서 백동수(지창욱 분)를 비롯한 무사들은 효종 임금의 북벌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병자호란에서 패한 인조(효종의 아버지)는 지금의 서울시 송파구에 있었던 삼전도 나루터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의 예를 올렸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산성일기〉에 따르면, 인조 15년 1월 30일(1637.2.24)에 인조는 천민들이 주로 입던 청의(靑衣)를 입고 삼전도에 가서 9층 단상에 앉아 있는 태종에게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를 올렸다. 총 3회 절을 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세 번씩 총 9회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이었다. 진흙 바닥에서 절을 했으니 손과 옷이 얼마나 더러워졌을까.

이런 치욕을 경험했기에, 조선인들은 청나라를 증오했다. 개중에는 북벌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북벌론이 국가정책이 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론화된 적도 없다는 사실이다. 북벌의 대명사로 알려진 효종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효종이 딱 한번 북벌을 언급한 적은 있었다. 효종 10년 3월 11일(1659.4.2)의 일이었다. 서인당(이이 · 성혼의 추종세력)의 영수인 송시열과의 비공개 회담에서였다. 이 회담은 효종이 북벌을 추진했다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회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과연 북벌론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효종–송시열 회담은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영수회담이었다. 당시 효종이 왕권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던 군비증강 때문에 임금과 서인당의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었다. 서인당이 군비증강을 반대한 것은 그것이 부유층의 세금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인당은 효종을 압박

했고, 효종은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모색해야 했다. 회담이 열린 것은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였다. 회담의 내용은 송시열의 글을 모은 『송서습유』 권7 「악대설화」에 실려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회담에서 효종은 군비를 증강하는 것은 실은 북벌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0년만 준비하면 청나라를 꺾을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효종이 재위 10년 만에 회담 석상에서 처음으로 북벌을 거론하는 순간이었다. 그러자 송시열은 "전하의 뜻이 이와 같으시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실로 천하 만대의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만일 차질이 생겨 나라가 망하게 된다면 어찌하시렵니까?"라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군비증강에 대한 협조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송시열이 그렇게 나오는데도 효종은 집요하게 자기 입장을 개진했다. "하늘이 내게 10년의 기간을 허용해준다면 성패와 관계없이 한번 거사해볼 계획이니, 경은 은밀히 동지들과 의논해보도록 하오." 송시열의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신은 결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전하께서 신을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송시열이 강경하다는 것을 확인한 효종은 잠시 화제를 바꾸어 보았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중에서 무엇이 가장 급선무인지 말해주시오." 그러자 송시열은 마음공부가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수양하라고 충고한 것이다. 송시열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자 효종도 더 이상 북벌을 운운하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나왔다. "내가 밤낮으로 애써 생각하는 것은 오직 병력을 기르는 일 뿐이오"라며 군비증강에 대한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송시열의 답변은 이랬다. "먼저 기강을 세운 뒤라야 이 법(군비증강 관련 제도)을 시행할 수 있는데, 기강을 세우는 길은 전하께서 사심을 없애는 데 달려 있습니다." 군비증강에 앞서 사심이나 없애라는 말이었다. 당신이 군비증강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은 북벌이 아니라 왕권강화가 아니냐는 뜻이었다. 이 날 회담은 이렇게 냉소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감됐다. 상호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친 회담이었다.

이 회담에서 효종이 북벌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를 근거로 그가 북벌을 추진했다고 해석하는 데는 일정 정도 무리가 따른다. 군비증강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목적으로 북벌을 거론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설령 이 회담이 북벌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회담은 비공개 회담이었다. 게다가 회담이 열린 날로부터 3개월도 안 된 효종 10년 5월 4일(1659.6.23), 효종은 41세의 나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회담에서 제기한 북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기회를 갖지 못했다. 더군다나 회담 내용이 공개된 것은 그가 죽은 지 15년 뒤인 현종 15년(1674)이었다. 효종이 살아 있을 때는, 그가

병자호란의 주 무대 중 하나였던 남한산성. 사진은 산성의 남문
(출처 : 문화재 지리정보 서비스)

비공개로나마 북벌을 거론했다는 사실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북벌을 거론한 적조차 없는 효종이 과연 북벌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병자호란 이후의 역대 임금 중에서 청나라에 가장 협조적이었던 인물은 다름 아닌 효종이었다. 청나라의 나선 정벌(러시아 정벌)을 위해 2차례나 군대를 파견한 주인공은 바로 효종이었다. 청나라에 가장 협조적이었던 왕이 북벌의 대명사로 거론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삼전도비
인조의 항복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비석이다.

효종이 실제로는 북벌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인들이 청나라에 무조건 굴복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무덤 주변의 신도비에 명나라 연호를 표기함으로써, 또 청나라를 야만시하는 소중화주의를 천명함으로써, 또한 청나라와의 국경문제(예컨대 백두산정계비 문제) 등에서 강경 입장을 취함으로써 비록 제한적이나마 청나라 앞에서 당당해지고자 노력했다. 실제로 병자호란의 사례만 제외하면 조선-청나라 관계는 그렇게 치욕스럽지도 않았다. 광서 5년 7월 4일자(1879.8.21) 청나라 광서제의 황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조선은 형식적으로는 청나라에 사대의 예를 갖추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내치 · 외교에서 독립국가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 사실 이것은 청나라 입장에서도 부득이한 일이었다. 병자호란 이후에 명나라에 이어 중국대륙을 차지한 뒤로 청나라는 조선뿐만 아니라 사방의 적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타 지역의 안보에도 신경을 쓰자면 어떻게든 조선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청나라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자호란의 치욕은 아주 예외적인 것에 불과했다.

조선은 북벌을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청나라 앞에서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비록 우리 마음에 완벽하게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라의 독립과 위신을 유지하려 했던 조상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글쓴이 소개

김 종 성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동양사 전공 박사수료
-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 '한국사 인물통찰' 강의 중
- 오마이뉴스 '김종성의 사극으로 역사읽기' 연재 중

“서예의 기본은 정신수양에 있습니다”

도원 정헌시 선생

‘서예’를 사전에서는 ‘글씨를 붓으로 쓰는 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서예는 화선지에 먹물을 적신 붓으로 점과 선을 결합하고 붓을 당기거나 밀거나 혹은 누르거나 들면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혹은 더디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른 형태의 선이 형성된다. 그래서 서예는 시각예술에 속해 있으면서도 ‘심상심학(心相心學)’으로서의 특성을 지닌 동양 특유의 조형예술이다. 그래서 서예는 다른 어떤 예술장르보다 작가 자신의 인격 수양이 크게 요구되며 가장 중요한 예술적 요인이 된다.

묵향에 취해 70여년을 한결같이 붓과 씨름하며 작품활동을 해온 도원 정헌시 선생(81). 선생은 고향을 지키며 직장과 작품활동을 병행하다 1981년서예학원을 설립, 서산에서 서예교육을 시작한지 30여년이 흘렀다. 초창기 서예학원을 열었을때 130여명씩 드나들던 학원은 지금은 선생의 작업실 겸 동호인들이 함께 어울려 글씨를 쓰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불우이웃 돕기 서예전을 서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 최근 근황은 .....

한때는 수백명이 수강하던 학원이지만 요즘은 조용합니다. 이제는 학원을 반납했고 개인서예연구실로 사용하면서 사랑방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몇 해 전부터 필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평생 해온일이라 아마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서 묵향을 맡으며 지낼것 같습니다.

◇ 지난 4월 불우이웃돕기 서예전을 갖게 된 계기는?

(서산시 윤산면과 당진군 경계에 세워진 상징탑)

제가 1981년 5월 1일 서산에서 서예학원을 열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수백명의 후진을 길러냈고 한 세대 동안 지역문화진흥에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으나 서예술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는지, 우리고장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작품으로 남겨놓은 80여점을 전시 판매하여 불우이웃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서산시민에게 위해 봉사하는것이 나를 오늘에 있기까지 보살펴주고 이끌어준 지역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거죠.

◇ 70여년을 붓을 잡고 글씨를 써온 것으로 아는데 서예에 입문하게된 동기는?

어려서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는데 그때는 한문을 배우면 붓글씨를 자동적으로 하게되었어요. 그후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면서 제가 글씨에 소질이 있었는지 환경정리를 도맡아 했어요. 군대에가서는 글씨 잘쓰는 덕으로 연대본부 상황실에 근무하게 됐죠. 그때 선임자(일등 중사)가 목포출신 미술교사였는데 한글을 아주 잘 썼어요. 그때 그분한데 배웠고 육군 휘호대회에 참가하여 특선하면서부터 더욱 서예에 매진하게 되었죠. 제대후 서산여고, 예산농고 등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21년 근무하는 동안 서무과에 근무하면서 방과후 학생들을 특별지도하였고 당시에는 상부 보고나 브리핑시 챠트를 써서 보고했기 때문에 늘 일에 묻혀 살았죠. 일복이 타고났다고 봐야죠. 허허 (웃음)

◇ 서예가 요즘은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 인기가 시들해진 경향이 있는데 선생님 생각은 ?

제가 학원을 시작했을때는 130~40여 명 이상이 배우러 올 정도로 인기가 참 많았어요. 당시에는 저혼자 가르칠 수 없어 선생을 두고 할 정도로 바빴는데 세상이 많이 변해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서예뿐만 아니라 예술 전반에 걸쳐 그전만 못한것 같아요. 그만큼 일반인들의 삶이 각박해졌고 학생들은 공부에 내몰리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여가생활과 취미활동 등에 서예만큼 좋은 취미가 없다고 봅니다. 서예술은 인류가 다하는 날까지 사람에게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오랜기간동안 서예를 해오셨는데 서예의 기본정신은 무엇입니까?

서예의 기본은 정신수양에 있습니다. 성격조정과 예절교육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이 글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학원을 시작할 때 원훈이 '서두르지 말고 쉬지 말라.' 였어요. 서예는 꾸준히 쉬지않고 정진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는 예술입니다. 빨리 갈려고 해도 안되고 꾸준히 해야 목표로하는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는 의미로 원훈도 그렇게 정했었는데 한눈팔지 않고 꾸준히 정신을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이 서예의 기본입니다.

◇ 서예를 지도하면서 보람있는 일은?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고 인근 태안, 홍성, 당진 등에서 후진들을 지도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또 전국대회에 나가 대상을 수상한 제자가 6~7명 되고 추천작가, 초대작가가 여러명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입상하거나 각처에서 자리잡고 묵묵히 자기길을 가줄때 보람을 느끼고 지역이나 타지에 가서 나의 작품 흔적을 만날 때 보람을 느끼고 기쁩니다. (서산에서는 낙토서산 기념비, 민태원 시비, 무학대사 기념비, 진충사 정충신장군 묘비 휘호, 전몰경찰관 충혼탑 휘호 등의 글씨가 남아있다.)

◇ 서예는 흔히 필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재작년(79세)까지는 힘든걸 몰랐는데 작년부터 건강이 많이 쇠약해 졌습니다. 나이를 먹다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인것 같은데 .....

그리고 12년전 제 식구가(부인)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제가 집에서 간호를 해줘야 해요. 평일에는 낮에 간병인을 두고 보살피지만 주말엔 제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늘 신경을 써주며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다른 운동을 하거나 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나면 작업실에 들러 평소대로 글씨 쓰는 것이 전부지요.

정헌시 선생은 붓을 잡을때가 제일 편안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원 선생은 아마 여생을 다하는 날까지 붓과 묵향을 함께하며 넉넉한 모습으로 서실을 지킬것 같다.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길 바란다.

〈글 : 유 병 인〉

도원 정 헌 시

- 1391년 서산 출생
- 교육행정공무원 21년
- 전국서예휘호대회 최우수상(1983)
- 한국문화미술대전 최우수상(1985)
- 구제문화미술대전 초대작가(1986)
- 국제문화미술대전초대작가상(1988)
- 서성대상심사위원(1984)
- 한중수교4주년기념 한중명가교류전(1996)
- 한일작가 200인전(동경) (1991)
- 대만국립박물관 초대출품(1994)
- 아세아미술대전초대작가(1993~)
- 서산서도회장(1983~)
- 한국예술문화상 수상(1995)
- 서산문화대상(1997)
- 서산시내 600가구 가훈써주기(2001)
- 서산서도회원전 24회
- 서산문화제 초대전 5회
- 서울, 대전 그룹전 30여회

“당신의 어휘력이 당신의 연봉을 좌우합니다”

이래서 NIE(신문활용교육)이다!!

“당신의 어휘력이 당신의 연봉을 좌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첫 강의 시간에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다. 학생들은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를 든 설명을 듣고서야 고개를 끄덕이곤 한다.

어휘력이란 일상의 업무문서, 기획서 등을 작성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문장 활용력 중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다. 이는 적확한 어휘를 활용하여 구술의 보충 설명 없이도 이해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문장 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직장 상사의 부름이 많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어 인사 이동이 있을 때 각 부서의 팀장은 그 사원과 근무하기를 원하게 되고 곧 진급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내 생각을 구술에 의한 부연 설명 없이도 문장으로 만들어 놓아 독자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혹 영상미디어 등 각종 매체의 발달로 문자의 활용도가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디지털 시대이기에 문자의 활용 능력이야말로 사회적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개개인의 소중한 자산 유형이 된다. 다시 말해 사회에서의 행복한 성공은 경제적 부만도 아니요, 드높은 명성만도 아닌 바로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가진 자이다. 그런 자만이 궁극적으로 이 사회의 자산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문자의 속성 자체가 사회성을 띄고 있으며 인간 또한 사회적 존재인 탓이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분리의식’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된다.

이렇듯 사회성을 띈 문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생기는 국가적 손해도 만만찮다. 우리는 세계에서 아이큐가 가장 높은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적인 과학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이 글쓰기 실력이 한 몫을 차지한다.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과학자들이 30%를 웃돌 정도라고 한다.

이에 따라 글을 잘 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어휘의 활용능력이다.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지만 평소의 밥상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일상의 생생한 일을 담은 신문을 꾸준히 읽는 것이다. 나아가 좀 더 관심이 생긴다면 아이에게 낱말을 활용한 짧은 글짓기를 하게 하거나 색깔별, 의미별, 느낌별 등으로 낱말 활용도를 분류하는 놀이를 병행한다.

이런 신문은 '살아있는 교과서'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는 셈이다. 세상을 바라볼 줄 안다는 것은 바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자산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신문을 통해 쌓은 배경지식이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은 실용적 문장을 공부하기 좋은 자습서이다. 그러므로 꾸준한 신문 읽기는 배경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장공부를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며, 자연스럽게 길러진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선생님이 된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이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바로 신문이 그러한 선생이다.

글쓴이 소개

최 광 임

- 2002년 〈시문학〉으로 등단.
- 시집 『내 몸에 바다를 들이고』
- 현재 시전문 계간지 〈시와 경계〉 편집장
- 한국NIE협회대전지회장
- 창신대 겸임교수

천/상/문/학/소/고

天 象 文 學 小 考

연웅(然熊) 류 상 동
(전 서산교육청 교육장)

내가 다섯 살쯤으로 생각되는 어느 여름밤에 어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며 보았던 그 많은 별이 눈을 감고 있어도 반짝반짝 비치며 떠오른다.

그것은 왜 그럴까, 누구나 그럴까, 지금도 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정말 그곳에 가서 그런 자세로 해볼까 하는 충동을 느낀다. 이런 궁상들이 천문학 특히, 별에 대한 책을 읽고 글을 써보는 동기가 되었다.

요즈음 하늘의 모습은 그 옛날과는 많이 다르고 별을 쳐다볼 분위기도 아니며, 굳이 눈으로 관찰하려고 힘들이지 않아도 새로운 기술로 하여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때 보았던 신기함과 감동은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서산시 부석면 강당리 664번지, 옛 우리 집 마당에 밀집 방석을 깔고 베개 베고 바라본 도비산 상공에 떠 있던 빛나는 별의 수는 최소 200개, 최대 3000개가 되었을 것임은 한참 뒤 별에 대해 탐구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때 어머니의 자장가 내용은 별에 대한 것이었다.

"별 하나 따서 독에 넣고 따개 덮고, 별 둘 따서 독에 넣고 따개 덮고....." 몇 개를 따서 넣었는지 모른다. 잠이 들었으니까.

모깃불 연기가 얼굴 위로 날아가 흩어지고서 또 별을 볼 즈음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너, 누구 자손이냐"하고 물으면 "금헌 자손이요"하고 공손히 대답해야 한다.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그냥 '금언', '금헌' 중얼거렸던 것 같다.

나이가 들어 장가간다는 말이 오고 가더니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서 집안 어른께서 너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겁을 주셨다. 잘못하면 장가가서 꾀 달리고, 상놈 되고 혼쭐난다면서 타이르는 말씀은, 네 성이 무엇이냐, 시조는, 중시조는, 관향은, 양천시하냐, 편시하냐 등등 예행연습까지 시키면서 특히, 중시조 금헌공은 "천문학자요" 하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훈수도 해주셨다.

서산시립도서관에는 천문학관련 서적 · 자료가 120여 점 진열되어 있다. 몇 년 동안에 한두 번씩은 들추어 보았고 얼마 전에는 인터넷으로 두 권을 구입하여 읽고 있다.

한 권은 "하늘에 새긴 우리역사" 저자 박창범 2009. 11. 1 김영사. 발행인은 박은주로 되어 있다. 또 한 권은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김일권 지음. 한국사연구원 구입처 교보문고이다. 김 교수와는 전화로 짧은 대화도 나눌 수 있었다.

천문학의 분야는 다양하다. 크게는 우주로부터 각론과 실제에 들어가서는 과학적 · 실학적 · 민속적 · 무속학적 · 예술적 나아가서는 동물의 이름 (쥐, 소, 닭, 토끼 등.....)까지 관련짓는 응용과 죽음의 절차(칠성판)에도 넣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地圖)한 페이지만 인용 기술해본다. 천상(天象)은 하늘의 모습을 뜻한다. 천상이란 하늘에 떠 있는 천체를 말하는데 특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별과 은하수를 천문도에 그린 것이고 새겨 놓은 것이다. 열차(列次)에서 차는 하늘의 적도 부근을 "세로 12역으로"라는 단위이다. 그러므로 열차는 차에 따라 벌려 놓았다 하는 뜻이다. 옛날에는 목성(木星)을 세성(歲星)이라 했다. 세성의 위치는 해마다 다르며 12년쯤이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해마다 세성이 돌아오는 곳을 기준으로 천구의 적도를 열두 구역으로 나누고 그 영역을 차(次)라고 부른다. 제사 지낼 때 축문(祝文) 머리에 유~ 세차 모월 모일(唯歲次 某月 某日) 이라고 쓰는 것은 '아유~ 오늘은 목성이 하늘의 어떤 차에 드는 해의 몇 월 며칠입니다. 이 시점에서 추모하며 음식을 차리어 올리오니 흠향 하옵소서.' 하는 제사를 지냈으니 조상님들은 제사(祭祀)를 우주적으로 모실 만큼 하늘을 우러러 큰 도량 속에 착하게 사셨다고 할 수 있다.

이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개국 4년의 국가적 사업이었다. 즉, 개국(開國)은 태조 자신이 강권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이었다는 것임을 알리는 데 있었다. 하늘로부터 천시(天時)의 역할에 대하여는 고려말 '정이오.' 의 고은집에 있고 1995. 11. 1 천상열차분야지도 석각 6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유경로, 나일성, 윤용민, 지거원, 정윤건, 김자수, 김후 등 12명이다.

그 가운데 석각을 마무리하며, 대표자로 기록된 세분은 권근 봉교기(奉敎記 : 내용을 가르쳐 기록함) 유방택 봉교추산(奉敎推算 : 별을 관찰 추산하여 가르침) 설경수 봉교서(奉敎書 : 전문을 명필로 써 가르침)이다.

한편, 이에 대한 태조의 교지는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실록 태조 2년 7월 29일 임신일에 태조께서 교지를 내리기를 검교밀직부사(檢校密直副使) 유방택 노을준 등으로 내가 막 즉위하던 해에 모두 일관(日官)으로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천시(天時)를 삼가 점쳐서 대위에 오르기를 권하였으니 또한 높일만하다. 그 포상하는 은전(恩典)을 유사(有司)는 거행하라. (이용복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교수 저서)

여기에 감히 몇 자를 첨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 이 석각 작품 (국보 228)은 심오한 탐구의 모습과 협의와 논의를 거치는 민주적 화합적 순수성이다.

두 번째,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인계인수 과정에서 비정치적 사항에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물을 채용 등용하였다.

셋째, 그 당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나 천문관련 사항(달력, 천세력, 등)은 왕의 전권으로 존중되었고 선진국을 왕대 할 때 문익점이 목화씨를 붓 뚜껑에 들여오듯 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제1의 선물자료였다.

넷째, 그 누구 한 사람의 명예를 드높인 것이 아니고 함께 했다는 것을 명예로 생각했던 분들이고 나라에서도 이점을 높게 평가했다.

다섯째, 600년의 오래된 역사가, 생존한 자손들에게까지 유언으로, 자료로 보관되었고 유림과 사회단체(송곡향현사, 공주동학사 등)에서 춘, 추제향을 하는 과정이 그 당시의 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다.

여섯째, 그중에서도 위 세분(권, 유, 설)의 족보와 현 생존 자손들과 전화 또는 대면 상담해본 과정에서 그 당시 농경시대, 가족 관계 간에서도 영향을 주고받았으리라고 믿는다. (권은 큰아버지 권준, 유방택은 4촌 형, 사암 유숙, 설경수는 그의 형 설장수)

우주는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 인간뿐이 아니라 천하 만물이 삼라만상이 함께 혜택 받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한다.

깨끗하고 신기한 저 하늘을 보자, 겨울 또는 여름 저녁 8시~10시경 조용한 산야에 누워 5분 정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유난히 빛나면서 여러분께 가까이 오는 별, 그 별이 제가 이 글을 쓰며 드리는 마음의 별로 생각하여 주면 좋겠다.

호 랑 나 비

남 은 주
서산문화원 문예창작반 수강생

노란 원추리 꽃잎 위에
형형색색의 또 다른 꽃이 있어
살짝 다가가 눈 맞추니
바람결에 흔들리는 호랑나비였네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
은근슬쩍 유혹해 보는데
내가 너에게 반한 것이냐
네가 나에게 반한 것이냐
하릴없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겨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네

서산회포마을로 놀러오세요~

◉ 서산회포마을

서해안 고속도로를 나와 서산에서 29번 국도를 타고 삼길포 방면으로 20분 정도 달리면 서해안 구릉지에 우뚝 솟은 망일산이 보인다. 망일산에 오르면 사방이 탁 트여 대산의 전경과 날이 좋을 때는 인천 앞 바다 까지 보인다. 회포마을은 망일산 자락 서산시 대산읍 운산5리에 위치하고 있고, 주민 대부분이 벼농사와 밭농사를 짓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회포란 예전에 바닷물이 마을 주변까지 들어왔다 돌아 나간다 하여 유례가 되었는데, 1980년대 대호 간척 사업으로 유기물이 풍부한 황금물결 넘치는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는 풍요로운 마을이다.

◉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리는 '횟개벗가리제'

회포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대보름부터 이월 초하루까지 마을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고,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횟개벗가리제'가 열린다. 벗가리는 정월 대보름에 가장 큰 왕대를 베어 볏집으로 감싼 후 마을 회관 앞에 세우고, 맨 꼭대기에 오곡을 헝겊에 싸 매달고, 벼이삭이 늘어진 모양으로 동아줄을 거꾸로 틀어 줄을 맨다.

이월 초하룻날은 벗가리대 앞에 제상을 차려 놓고 제를 올리면 영좌가 비손문을 외고 마을 주민 모두는 재배를 한다. 이 기간 마을을 방문한 체험객들을 위해 가족의 건강과 소망을 비는 가족단위 벗가리대 세우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농촌체험 운영

도시민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한 팜스테이마을과 정보화 시대에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 및 마을 홈페이지를 통한 농산물과 체험상품의 전자 상거래를 위한 정보화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고, 농촌체험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녹색 농촌 휴양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는 앞서가는 선진 농촌 마을이다.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덜커덩 관광 열차를 타고 떠나는 정거장 체험, 마을의 친환경 특산물인 맷돌 호박으로 전과 칼국수를 만드는 호박요리체험, 소나무 숲속 전원 골프장의 파크골체험, 해담뜰 방아 체험과 계절별 수확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포마을 홈페이지(http://hoepo.invil.org ☎ 070-8802-6635)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 오시는 길 주소: 충남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241번지, 서산회포마을

진짜 공룡을 만나보자!!

안면 도쥬라기공원

□ 박물관 개관까지

안면도 쥬라기공원은 대표인 임태영 회장이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15년 전부터 세계 여러나라에 다니면서 수집한 작품들을 모아 개관한 공룡박물관이다.

서해안 시대의 도래에 발 맞추어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자연의 역사가 주는 지식과 기쁨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건립하였다. 태안 남면 신온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지난 7월 5일 개관하였다.

그 동안 국내 공룡 박물관들을 진품을 구하지 못해 모든 전시품은 모조물을 전시하거나 진품과 모조품을 합성한 전시품들을 전시하였지만 이곳 안면도 쥬라기 공원은 국내에서 진품 공룡 화석을 가장 많이 보유한 박물관으로 총 3,000여종의 전시 물품중 진품 공룡만 50여종이 이른다.

모조품인 스피노사우루스는 세계에서 구할 수가 없어 2009년 일본 전시회에 전시된 복원품을 이태리 박사로부터 구입하였으며 기타 복원품 및 복제품을 쥬라기공원 연구실에서 복원 전문 박사에게 검증하여 전시하고 있다. 공룡 뿐 아니라 자연 과학 발달을 알아보는 체계적인 시대별 화석, 우리의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여러 광물들과 원석 250여종과 고생대 생물 화석 300여종, 그리고 원석을 가공해 만든 보석과 쥬얼리 등을 전시하고 있다.

안면도 쥬라기 공원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지구와 역사를 배우게 하고 어른들에게는 자연사의 이해를 돕는 국내 최고의 공원으로 가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도 박물관을 방문하시어 느끼고 체험해 보기를 권해본다.

□ 안면도 쥬라기 공원의 대표적인 진품 공룡

○ 스피노사우루스(뿔이 달린 도마뱀)는 독일의 고생물학자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한 백악기 중기 시대 공룡으로 세계적으로 유골이 3~4에 불과한 희귀중이다. 미국에서 영국박사에게 구입하였다.

○ 익룡, 타페자라, 오르니토케이루스는 걸어다니는 익룡으로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된 유골이다. 신생대 가마우지는 완벽한 골격으로 발견되었다.

○ 희귀 공룡인 티타노사우루스의 알은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막 부화하기 직전의 상태로 알속에 새끼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영국의 유명한 켄달 마틴 박사에게서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 피나코사우루스. 갈리미우스등 국내에 없는 진품 골격도 다수 전시되어 있다.

□ 박물관 구성

1층 중성대 시대 아파토사우루스(24m) 공룡과 갈리미우스를 발굴하는 디오라마, 진품 수각류 발(타르보, 양추아노, 말레에보사우루스)비교 전시

2층 파충류, 포유류, 세계적으로 희귀한 익룡 2종과 진품 신생대 가마우지, 새, 해양파충류 신생대 시대 메머드, 검치호랑이, 나무늘보, 움직이는 공룡

3층 삼엽충, 암모나이트, 현생하는 박제, 해양 생물, 고생대 화석등과 더불어 원석류가 집중배치, 또 원석을 가공한 보석과 쥬얼리와 미디어실

지하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룡 발굴 체험관

야외 폭포와 한국 자생 소나무, 야생화등을 심은 자연 생태공원으로 꾸며지며 공원 곳곳에 실물 크기의 움직이는 공룡들을 설치해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생태 환경재현

- 주　　소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641-3(곰섬 입구)
- 관람시간 : 하절기 평일 - 09:30~18:00 공휴일 - 09:30~19:00
  동절기 - 09:30~18:00
- 휴 관 일 : 매월 1월 1일, 매월 1,3주 월요일, 구정, 추석당일
- 관 람 료 : 개인-10,000원(8,000원) / 청소년,군경 및 어린이-8,000원(6,000원) /
  유아,노인-4,000(3,000원) ( )는 30인이상 단체
  ※서산,태안 지역주민 20%할인
- 체 험 료 : 8,000원
- 전　　화 : 041)674-5660~1
- 홈페이지 : http://www.anmyondojurassic.com/

절 하는 방법

평절에 대해 반절로 답배를 하는 모습

절은 우리 전통의 인사법이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 절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지만, 어른을 뵙고 예의를 갖춰 인사를 드릴 때나 관혼상제 등의 의식행사에서는 절이 빠질 수 없다. 특히 명절에는 절을 하고 어른께 덕담도 들으면서 몸에서 우러나오는 예를 느끼게 된다. 때와 장소에 따라 절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평소에 잘 익혀 두면 갑자기 절을 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석에 올바로 인사해 보자.

◉ 절의 종류와 절하는 대상

절의 종류에는 큰절, 평절, 반절이 있다. 남자의 절을 각각 계수배(稽首拜), 돈수배(頓首拜), 공수배(控首拜)라고 하며, 여자의 절은 숙배(肅拜), 평배(平拜), 반배(半拜)라고 한다. 큰절은 자신이 절을 했을 때 답배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에게 하는 절이다. 또한 관 · 혼 · 상 · 제 등의 의식행사에도 큰절을 한다. 큰절을 하는 대상은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존속이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아내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다. 방계존속은 백숙부모, 종조부모 등 부모와 항렬이 같거나 높은 가까운 친척을 말한다.

평절은 자신이 절을 하면 답배 또는 평절로 맞절을 해야 하는 웃어른이나 같은 또래 사이에 한다. 즉, 선생님, 연장자, 상급자, 배우자, 형님, 누님, 형수, 시숙, 시누이, 올케, 친구 사이에 하는 절이다. 친족이 아닌 경우 나이 차가 15년 이내라면 평절로 맞절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을 뵈었을 때 평절을 하면 어른이 답절을 하며, 부부간에 결혼할 때, 세배할 때 형제간에는 서로 평절로 맞절을 한다.

반절은 웃어른이 아랫사람의 절에 대해 답배할 때 하는 절이다. 대상은 제자, 친구의 자녀나 자녀의 친구, 남녀 동생, 8촌 이내의 나이차 10년 이내 연장비속(방계비속, 조카 등 항렬이 낮은 친척), 친족이 아닌 16년 이상의 연하자 등이다. 평절을 받을 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성년이 아니면 말로 인사를 대신하는 수도 있으나, 성년이면 반드시 답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친구의 성년인 자녀가 찾아와 절을 한다면 답배로 반배를 하는 것이 예절이다.

◉ 절하는 방법 – 남자

• 남자의 큰절

1. 공수(남자는 왼손이 위로가게 포개 잡는 것)하고 어른을 향해 선다.
2. 공수한 손을 눈 높이까지 올렸다가 내리면서 허리를 굽혀 공수한 손을 바닥에 짚는다.

3.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는다.
4.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를 공수한 손등 가까이에 댄다. 이 때 엉덩이가 들리면 안 된다.
5. 공손함이 드러나도록 잠시 머물러 있다가 머리를 들며 팔꿈치를 펴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 공수한 손을 바닥에서 떼어 오른쪽 무릎 위를 짚고 일어난다.
6. 공수한 손을 눈 높이까지 올렸다가 내린 후 묵례한다.

• 남자의 평절

큰절과 같은 동작이나 손을 눈 높이로 올리지 않으며, 이마가 손 등에 닿으면 금방 일어나는 차이가 있다.

• 남자의 반절

공수한 손을 바닥에 짚고 무릎 꿇은 자세에서 머리와 엉덩이까지 등이 수평이 되게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남자의 큰절과 평절

남자의 반절

◉ 절하는 방법 – 여자

• 여자의 큰절

1. 공수한 손(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포개 잡는 것)을 들어 어깨 높이 만큼 올리고 시선은 손등을 본다.
2.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가지런히 꿇은 다음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는다.
3. 윗몸을 45°쯤 앞으로 굽힌 다음 잠시 머물러 있다가 윗몸을 일으킨다. 머리를 깊이 숙이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 장식 때문이다.

여자의 큰절

여자의 평절

4.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일어나 두 발을 모은 후 올렸던 두 손을 내려 공수한 후 가볍게 묵례한다.

• 여자의 평절

1. 공수한 손을 풀어 내린 다음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가지런히 꿇은 다음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는다.
2. 몸을 앞으로 30°도 정도 숙이면서 손끝을 무릎 선과 나란히 바닥에 댄다.
3. 잠깐 머물렀다가 윗몸을 일으키며 두 손바닥을 바닥에서 떼며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일어난다.
4. 두 발을 모으고 공수한 다음 가볍게 묵례한다.

• 여자의 반절

평절을 약식으로 한다. 답배의 대상이 나이가 많이 차이 나면 남녀 모두 앉은 채로 한 손 또는 양손을 바닥을 짚는 것으로 답배한다.

◉ 절에서 참고할 점

공수의 위치평상시 공수(拱手)는 남자의 경우 왼손이 위로, 여자의 경우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한다. 흉사(상례 등)일 때는 공수의 위치가 바뀌어 남자는 오른손이 위로, 여자는 왼손이 위로 가게 한다. 제사는 흉사가 아니고, 조상을 받드는 자손이 있어 길사로 본다. 따라서 제사 때의 공수의 위치는 평상시와 같다.

출처 : 네이버 상식백과

(자료제공: 용인시 예절교육관 http://ye.yonginsi.net/)

오청취당, 그녀를 만나다.

김 인 옥
(흙빛문학회장)

햇살이 고왔다. 그녀의 격정적인 생애 만큼이나 날씨 또한 뜨거웠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일행은 꽃다운 젊은 날에 생을 마감하고 신선이 되어 떠나간 한 여류작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 위해 길을 나섰다.

열정과 고뇌를 한 몸에 담고 운명에 맞서 몸부림치며 살다간 여인, 오청취당.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은 여름 내내 계속되던 궂은 날씨가 걷히고 진한 햇살이 고운 9월의 첫날이었다.

〈오청취당, 그녀는 누구인가?〉라는 테마를 가지고 떠나는 이번 답사는 그녀의 삶과 문학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전에 오청취당에 관한 연구서나 작품을 접한 적은 있었지만 그녀의 숨결을 좀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답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찍이 이 땅에서 살다 간 여류시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일이기에 가슴이 뛰었다.

오전 10시, 일행을 태운 버스가 서산문화원을 출발했다. 오청취당을 연구한 문희순 교수의 안내로 일행은 오청취당의 묘소가 있는 팔봉면 금학리로 향했다.

오청취당의 묘소는 팔봉산 아래 양지바른 곳에 위치해 있었다. 제를 올리고 나서 일행은 묘소 주변에 둘러앉아 직계후손인 김혁환 선생님으로부터 청취당에 관한 일화들을 전해 듣고 이어 『청취당집』을 역주한 문희순 교수님으로부터 오청취당의 삶과 문학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오청취당은 1704년에 경기도 양성(지금의 평택 포승면)에서 태어나 1732년에 세상을 떠났다. 오청취당이 서산과 인연이 된 것은 나이 스물 둘에 음암면 유계리 경주 김씨(세칭, 한다리 김씨)가문으로 시집을 오면서부터다. 스물두 살에 시집와서 스물아홉 살 생을 마감하기까지 칠 년 동안 그녀는 182수라는 적지 않은 시문를 남겼다. 가난과 병마,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몸부림치며 한 생을 살아낸 그녀에게 문학은 벗이요, 자식이요, 어버이였을 것이다.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오며 그 어떤 삶도 녹녹치 않았던 그녀는 시문에 자신의 시름과 고독을 담아내며 운명에 굴복하기보다 스스로 그 운명에 맞서 싸우는 열정적인 생을 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청취당'이라는 호를 짓고 '경설국'이라는 별호도 가지고 있었다. 청취당은, 성자의 맑은 성품과 대나무의 푸른빛을 취하여 지은 것이고, 경설국은 하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무심하게 내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가지와 잎이 무성한 '동국의 계수나무'라는 뜻으로 지은 것이라니 참 대단한 분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렇듯 스스로의 존재에 대하여 자부와 긍지가 뛰어난 오청취당은 모든 사물과 인생의 희노애락을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

그러나 오청취당의 뛰어난 시문들은 그 당시는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다행이 몇 년 전 서산문화원에서 『청취당집』을 발간하고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청취당이 떠난 길을 따라 갔던 일행은 돌아올 수 없는 그녀를 남기고 갔던 길을 되돌아 나왔다. 돌아오는 길, 문득 삶과 죽음이 한 길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가슴 찡한 청취당의 시문을 감상하노라니 가슴이 먹먹해왔다. 특히 어린 나이에 친정 어머니를 여위고 철없는 동생을 부둥켜안고 울었다는 시구(詩句)와 병마와 싸우며 운명 직전에 쓴 시에서는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일행은 시간을 거슬러 청취당이 생전에 살았던 곳을 찾아가기로 했다. 문화원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고 일행이 향한 다음 답사지는 청취당이 결혼하여 살았던 마을 음암면 유계리였다. 안타깝게도 청취당이 살았던 집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사색하고 고뇌하며 걸었음직한 길을 따라 걸어보기로 했다. 힘든 시집생활을 하면서 두 자식을 가슴에 묻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던 그녀는 이 길 어딘가에서 바람과 구름과 들꽃들을 벗 삼아 글을 지으며 심신의 고독을 달래보려 했을 것이다.

일행은 경주 김씨 가문인 정순왕후 생가와 김기현 가옥 등을 둘러보고 단구대(丹丘臺)와 용유대(龍遊臺)로 향했다. 이 일대 어딘가에 살면서 이 길을 수없이 거닐었을 거라 생각하니 예전에 이런저런 다른 일로 지나쳤던 느낌과는 전혀 다른 길처럼 느껴졌다. 그녀와 함께 숨 쉬고 울고 웃었을 길가에는 푸른 들풀들이 말없이 짙게 깔려있었다.

답사를 마칠 때까지 햇살은 여전히 눈부시게 곱고 뜨거웠다. 온 몸으로 삶과 문학을 끌어안고 살다간 그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그리움과 외로움을 품고 살았던 한 여류시인이 자신의 지병과 자식을 잃는 아픔까지 겪으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걸었을 논둑과 밭이랑, 그리고 솔밭 모롱이. 그때 거기가 지금 여기 어디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의 희미한 발자국 위에 내 작은 그림자를 얹어 보았다.

서명숙과함께걷는아라메길

2011년 9월 3일(토) 10시 서산문화원(원장:이준호)은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 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사업은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서산의 아라메길을 함께 등반하고 서산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 올레길로 잘 알려진 사단법인 제주 올레 서명숙 이사장이 참여하여 예산문화원 문화가족과 아름다운 도보여행 회원 80여명과 함께하였다.

늦여름의 맑은 햇살 속에서 용현리 계곡 안내소에서부터 시작한 아라메길 등반은 산과 바다라는 옛 이름처럼 숲과 바다, 계곡이 어울어진 아름다운 길이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길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용현리의 모습에 서명숙 이사장의 감탄과 칭찬이 이어졌다.

또한 아라메길 등반과 함께 서산의 대표적인 명소인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 보원사지, 개심사를 답사하고 등반 후에는 충청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6호인 서산박첨지놀이를 함께 관람하면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음암면 탑곡리 마을의 전통인형극인 서산박첨지놀이 공연 속의 인형들이 절을 짓는 장면에 모두 박장대소하면서 쌓인 피로를 푸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점심식사 후 이어진 서명숙 이사장의 특강에서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도전과 제주올레길을 개척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제주를 비롯하여 서산의 아라메길,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이 서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야기를 마치자 서이사장의 진솔한 이야기에 참석자들은 모두 박수를 보냈다.

본 행사를 함께한 서명숙 이사장과 참여자들은 모두 서산의 넉넉한 인심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알게 되었으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서산을 방문하고 싶다며 짧은 만남을 아쉬워했다.

대한민국에 선풍적인 효과를 가져온 제주올레길의 창시자인 서명숙 이사장의 방문으로 앞으로 서산시의 아라메길이 더욱더 알려지고 제주올레길에 버금가는 명소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서산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의 고부가가치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개강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강의기간 : 2011. 9. 5~11. 25(3개월)
- 강의과목 : 플룻외 22과목

▮노인일자리사업 발표회

2011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마치고 참여자와 수강생이 함께 하는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1. 9. 28(수)
- 장　　소 : 서산문화원 문화감상실
- 대　　상 : 노일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수강생, 관계자 등
- 발표내용 : 스포츠댄스, 장구, 무용 등

▮명사와 함께 하는 고향여행

명사와 함께 서산의 아라메길을 걷는 문화답사를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정 및 초청명사 : 서명숙(9.3), 용혜원(9.17), 윤문식(10.1)
  이순원(10.15), 한광일(10.22), 정호승(10.30)
- 장 소 : 아라메길 1코스(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보원사지~개심사)
- 내 용 : 아라메길 트레킹, 명사특강, 민속공연관람(서산박첨지놀이)
- 대 상 : 타지역 주민
- 참여문의 : 669-5050(사무국)

※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와 음악으로 만나는 오청취당

오청취당의 시와 임동창의 음악이 만나는 숲속의 달빛 콘서트!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일　　시 : 2011. 10. 10(월) 오후 7시
- 장　　소 : 옥녀봉 단군전
- 연출 및 연주 : 임 동 창(피아니스트)

※ 9월 16일 예정이었던 공연 일정과 장소가 변경 되었습니다.

시|정|소|식

제9회 서산시민체육대회 안내

○ **대회일시** : 2011년 9월 24일(토) / 개회식 10:00
※ 우천시 9월25일(일) 순연

○ **대회장소** : 서산종합운동장 및 종목별 보조경기장

○ **주　　최** : 서산시체육회

○ **주　　관** : 시체육회 산하 종목별 가맹경기단체

○ **후　　원** : 서산시, 서산시의회, 서산교육청, 서산경찰서, 서산시생활체육회

○ **경기방법** : 읍 · 면 · 동 대항

○ **참여인원** : 30,000여명

○ **경기종목** : 12종목(대항경기 12)

– 정식종목(12) : 육상, 축구, 배구, 씨름, 게이트볼, 테니스, 탁구,투호놀이, 배드민턴,바구니에 공 집어넣기, 긴 줄넘기, 줄다리기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김시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박봉규 (서산시 성연면) 5,000원
• 남현우 (서산시 예천동) 10,000원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신정안 (서산시 동문동) 3,000원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이내윤 (서산시 운산면) 80,000원
• 이낭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한기홍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이현웅 (서산시 운산면) 20,000원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이융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구자상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서종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